

'월세가 대세' 광주·전남 거래비중 60% 돌파

1~7월 3만5753건 전년비 1만882건↑...전국 100만건 작년부터 전세 '역전'...전세사기 피해·금리 하락 영향

전국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의 장기화로 매매거래가 위축,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여파와 하반기 금리 하락 등이 맞물리며 찾아온 현상으로 분석된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공정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지역 내에서 확정일자 부여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건수는 광주 1만9233건, 전남 1만652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광주 1만3911건, 전남 1만960건)과 비교해 보면 광주는 5322건, 전남은 5560건 늘었다. 지난해 거래된 전세 월세 계약 건수(광

주 2만3466건, 전남 1만9319건)와 견줘 보면 광주 81.9%, 전남 85.5%에 달한다. 최근 몇 년 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1~7월을 기준으로 지역 내 월세 거래는 2020년 광주 8578건·전남 7501건, 2021년 광주 9538건·전남 8566건, 2022년 1만3097건·전남 1만1082건, 2023년 1만3909건·전남 1만2751건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월세가 긴 계약 비중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선 상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0년 관련 통계 집

계가 시작된 이후 2023년(전세 50.8%, 월세 49.2%)까지 전세 계약 비중이 월세 비중을 앞섰으나 지난해 전세 48.3%, 월세 51.7%로 뒤바뀌었다. 올해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확대된 모양새인데, 당장 1월부터 월세 계약 비중이 60.2%를 기록하며 전세 비중(39.8%)을 크게 앞질렀다. 2~7월 역시 월세 계약 비중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월세를 긴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을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로 보고 있다. 이월 기점으로

로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강세 흐름이 뚜렷하다.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긴 계약은 105만6898건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첫 100만건 돌파다. 이와 함께 수도권 경우 임대차 시장의 월세 계약 전환 추세가 뚜렷했던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화가 더욱 가속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 건설업계 "경기회복 시의적절"

정부가 최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최근 무너지는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종합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지방 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인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다만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뚝뚝한 한 채' 풀린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그건 건설산업 불황이 이어져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 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추진 과제들이 신속히 제도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큰 체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전KDN, 해상풍력 신규 사업 유니스과 에너지기술 개발 협력

한전KDN은 최근 유니스 서울 사무소에서 유니스과 '해상풍력 신기술 개발 및 신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 기업인 한전KDN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풍력 터빈 전문기업 유니스의 관련 기술 결합으로 해상 풍력발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양사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박원서 유니스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의 업무 소개와 협약서 서명, 향후 실적 이행 방안 등에 대한 공유로 진행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참여 △에너지 신사업 모델 발굴 △핵심기술 공동 개발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전KDN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운영 관련 ICT 기술 선도와 이를 통한 보안기술 표준화로 에너지 보안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원서 유니스 대표는 "이번 협약은 풍력 터빈 제조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양사가 보유한 업무 강점을 결합해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신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 공기업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2개사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아이아이에스티 '재난감지 CCTV'·코리아넷 '다목적 CCTV'

광주지방조달청은 전남지역 2개 제품이 올해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제품은 아이아이에스티의 '화재와 진동을 감지하는 재난감지 CCTV시스템'과 주식회사 코리아넷의 '이벤트 영역 고해상도를 통해 객체 인식 효율이 향상된 다목적 CCTV시스템'으로, 독창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안정성을 모두 인정받아 조달청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관리를 지원하

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시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간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김우환 청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인재개발원에서 NEW국제직업전문학교와 공동으로 '2025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가전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광주상의, 특화강좌 개설 현안 과제 해결 등 연계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인재개발원에서 NEW국제직업전문학교와 공동으로 '2025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가전내일 청년 특화지원사업' 일환으로,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마케팅 분야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 자리였다. 약 5개월간 'AI 활용 기업 홍보 마케팅 실무과정' 특화훈련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실제 가전기업의 현안을 주제로 기획·제작한 결과물을 무대에서 발표했고, 이를 지켜본 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실무적 관점에서 다양한 피드백과 격려를 전했다. 행사에는 ㈜다음전자, ㈜뉴그린코리아 등 지역 가전기업 관계자와 산대체 훈련 청년, 광주지역인재지원개발위원회 관계

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5개 팀은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디자인 시안,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성과물을 공유했으며 팀별 발표 후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느낀 소감과 배움을 나눴다. 이음프로젝트는 가전산업에 특화된 강좌를 개설, 청년들이 약 5개월간 전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 중 후반 2개월은 가전기업의 실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됐다. 교육과 실무를 긴밀히 연결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실전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새로운 해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한 상생 모델로 평가받았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향후 마케팅뿐 아니라 R&D 등 다양한 분야로 이음프로젝트를 확대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북광주농협과 능주농협이 최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총화상을 수상했다.

북광주농협·능주농협, 농협 최고 권위 '총화상' 수상

사회공헌·경제사업 성과·최우수직원에 서명농협 김옥범 과장

북광주농협과 능주농협이 농협 최고 권위 표창인 '총화상'을 각각 수상했다. 17일 농협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북광주농협과 능주농협이 총화상을 각각 수상했다. 총화상은 전국 1111개 농협과 농협중앙회 계열사 중 임직원의 단결, 사회공헌 활동, 농업인 소득 증대 노력, 업무추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되는 농협 내 최고 영예의 상이다.

북광주농협은 2023·2024년 종합업적 평가 우수상, 2024년 NH농협은행연도대상, 2024년 하나로마트 업적평가 장려상 등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낸 데 이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지역사회 기부·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가 평가됐다. 능주농협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과 농업인 소득 증대 노력, 업무추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되는 농협 내 최고 영예의 상이다. 전국 최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서영남농

협 김옥범 과장은 우수직원상과 함께 1호 특별 승급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에서는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이 대통령상, 순천월영 체류진 조합장이 국무총리상, 담양농협 김범진 조합장이 농식품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혼연일체로 농업인을 위해 헌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분사와 지역사회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축협, 3%대 특판 예금 출시

창립 67주년·자산 1조 돌파 기념

광주축협은 창립 67주년과 자산 1조원 달성을 기념해 특별 예금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판 예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광주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최고 연 3.1%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를 적용해 조기 완판이 예상된다. 김재필 광주축협총협 조합장은 "광주축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조합원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산 1조원 달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고객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판 예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만큼 앞으로도 고객과

조합원의 삶 속에 든든히 자리하는 능협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조합원의 삶 속에 든든히 자리하는 능협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신보, 전력데이터 활용 중기 ESG경영 지원

우수기업 보증한도 최대 20% 상향 등 협약

한국전력이 신용보증기금과 ESG 인증 모델을 개발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보와 '전력데이터 활용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데이터와 신보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기업의 전기사용량 절감 실적에 기반한 ESG 성과를 인증하고 우수기업에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기사용량 절감 실적 활용 ESG 인증모델 개발 및 운영 △ESG 이행기업 대상 보증 규모 확대 △탄소배출 저감 및 ESG 경영 확산 등의 협력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의 보증기업은 ESG 경영 활동 실적에 따라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를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ESG 이행 우수기업은 보증한도 최대 20% 상향 적용과 보증료를 최대 0.5%p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효과

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보증 발급을 신청하면, 한전이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ESG 리포트를 발급하고 신보가 이를 근거로 보증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향후 신청 시스템 개발을 거쳐 시범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중운 한전 ICT기획처장은 "이번 협약은 전력데이터와 금융 인프라를 융합해 중소기업의 ESG 이행 실적을 효율적으로 인증하고 금융 혜택까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또 6 17 22 28 29 32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3억9000만원

제118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7, 22, 28, 29, 3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3억887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604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03명으로 16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79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6만6276명이다. 연합뉴스